

의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 : 인간 복제를 중심으로*

김 상 득**

1. 들어가는 말 : 체세포 핵 이식 복제술

'돌리' '영롱이' '진이' '피브로' 등의 고유명사가 생명공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신비로 알려진 생명 창조와 신타래가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을 넘어서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 치료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 역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생명체 복제 기술을 단순히 의학의 눈으로만 보아서 안 되며, 오히려 인간 전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생명 복제술이란 말 그대로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가? 생명 복제술은 크게 생식세포 복제술과 체세포 복제술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돌리를 가능케 한 체세포 복제술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돌리의 경우, 체세포 복제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6년 된 암양 A의 세포를 채취하여 핵을 분리해 내고, 세포질을 공여하는 암양 B로부터 난자를 회수하여 핵을 제거한 후, A의 핵을 B의 난자에 이식시켜 제 3의 대리모인 암양 C에게 이식시켜 A와 유전형질이 동일한 암양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돌리이다. 생식세포 복제술과는 달리 체세포 복제술에서는 핵을 이식시키는 것이 본질적이기에 이를 체세포 핵이식(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복제술이라 한다.

이러한 체세포 핵 이식 생명복제가 왜 문제시되는가? 그것은 생명복제 기술이 함축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 때문이다. 그 첫째는, 이미 체외수정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생명의 탄생이 인간이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즉 무성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동일한

*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 연수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유전형질을 지닌 '생명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생명 복제술의 도움으로 태어난 생명체는 그 핵 제공자와 유전인자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생명 복제술을 인간에 적용할 경우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로, 이미 그러한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듯이, 생명 복제술이 유전공학과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유전형질을 지닌 생명체를 인간이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특징으로 어떤 윤리적 물음이 인간 복제술에 함축되어 있는지를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2. 동물 복제의 윤리적 물음

단순한 동물 복제는, 멸종위기의 희귀종 동물 보존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류에게 아무런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과학자들은 동물을 복제하고자 하는가? 인류에게 유용한 특성을 지닌 동물은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그 번식에 한계가 있지만, 복제술을 이용하면 그러한 동물을 우리는 무한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들어 낸다면, 복제술은 인류의 식량난이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센터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백혈구 증식 인자 'G-CSF'를 지닌 젓을 생산해내는, 형질전환 흑염소 '메디'를 출산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의학적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인간 장기'를 지닌 동물을 만들 수 있다면, 동물은 그야말로 하나의 의약품 공장(bioreactor) 역할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동물 복제가 왜 윤리적으로 문제시되는가? 첫째로 동물 복제술은 생태학적인 물음을 야기한다.¹⁾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동물 복제의 경우 필연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지닌 개체의 복제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유전자 변형 동물 복제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할 것이다. 자연을 원자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할 경우, 유전적 다양성의 훼손이나 새로운 유전형질을 지닌 생물 종의 출현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질병 감염 등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원숭이나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의학적으로 거부반응이 없도록 만들어진 동물 장기조차도 인간에게 어떤 질병을 일으킬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1) I.Wilmot and D.Bruce, "Dolly Mixture", D.Bruce & A.Bruce, ed., *Engineering Genesis: The Ethics of Genetic Engineering in Non-Human Species*(London:Earthscan Publications Ltd., 1998), p.76.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반론은 하나의 실천적 반론이다. 다시 말해, 동물 복제술은 실천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이나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실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생명 복제술이 발달하여 이런 실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동물 복제는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가? 일부 생명옹호론자들은 비록 실천적 부작용이 없더라도 생명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반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바로 생명 복제술은 동물의 복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비단 동물 복제술에만 해당되는 물음이 아니라 동물 실험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이다. 실제로 로슬린 연구소는 276번의 체세포 핵이식 복제를 감행하여 277번째 드디어 성공하여 돌리를 탄생시켰다. 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삼아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이미 서구에서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해방 내지 권리 운동'(animal liberation or animal rights movement)은 이런 실험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한다. 왜냐하면 이는 종족주의(speciesism)라는 또 하나의 차별이기 때문이다. 종족주의란 "인간 종이 다른 종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을 착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²⁾ 인종이나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듯이,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종족주의 역시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 지위'(moral standing)에 관한 어려운 윤리적 물음을 야기한다.³⁾ 소위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떤 등산객이 울창한 삼림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며칠 동안 굶주렸는데 산딸기를 발견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토끼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면 토끼와 등산객 가운데 누가 이 딸기를 먹을 권리를 지니는가?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할 경우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동물 권리론자들이 이런 실천적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동물의 권리 주장은 실천적 작동가능성이 없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해도 동물은 자기 권리를 표명할 수 없다. 그러면 동물 권리의 대리인은 누구인가? 아마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천적 문제의 경우 인간의 관점에서 권리 충돌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⁴⁾ 따라서 동물의 권리에 근

2) P.Singer, *Rethinking Life and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4), p. 173.

3) 도덕적 지위에 관한 자세한 윤리학적 논의는, 줄고, "응용윤리학 방법론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6) 4장 <도덕적 지위론>을 참조하라.

4)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H.J. McCloskey, *Ecological Ethics and Politics*(New Jersey: Roman and Littlefield, 1983), Ch. 6. <Animal Rights>를 참조하라.

거한 동물 복제 반대는 그 근거가 약하다고 하겠다. 즉, 동물 복제가 인간에게 현실적 유용성뿐 아니라 상당한 잠재적 유용성을 지닌다면, 동물의 권리에 근거해서 동물 복제에 반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동물 복제에 대한 마지막 반론은 자연의 섭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생명체 복제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반론은 사실 네 가지 명제를 무비판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이 반론은 (1)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 (2) '자연적'과 '비자연적'이 구분 가능하다, (3) 동물 복제는 비자연적인 것에 속한다, 그리고 (4) 비자연적인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 4가지 명제 중 어느 하나라도 거짓으로 밝혀지면 자연의 질서에 근거한 동물 복제 반대는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여기서 (1)은 경험적으로 밝힐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물음이다. 그래서 동물 복제 옹호론자들은 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2)와 (3)의 명제를 공략한다. 명제 (2)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론적 구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구분 가능성이다. 이론적 구분 가능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실천적으로 구분 불가능하다면 명제 (2)는 그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다. '자연적'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을 의미한다면, 이 세계에는 그러한 자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 예로,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과 인간이 통나무로 집을 건축하는 것은 서로 그 범주가 다른가? 어떠한 답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은 자연에 대한 자의적인 정의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할 것이다.

한 걸음 양보하여 '자연적/비자연적'의 구분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동물 복제는 비자연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이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식 활동도 모두 자연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활동 가운데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반박을 피하고자 자연의 질서를 본래적인 자연과의 부조화로 해석한다면, 자연 질서 반론은 결국 첫 반론인 생태학적인 반론으로 환원되고 만다. 다시 말해, 동물 복제가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물음은 실제로 동물 복제가 생태계 및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천적 물음에 의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사 동물 복제가 비자연적인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복제 옹호론자들은 왜 단지 비자연적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의 부담이 반대론자들에게 있듯이, 동물 복제의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인간에게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준다면 증명의 부담은 복제 반대론자에게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동물 복제에 반대할 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논변을 폈다. 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동물 복제와 유전자 조작 동물이 생태계와 인간 생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론적 문제점이 없다 할지라도 동물 복제에 대해 우리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즉, 동물 복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동물 복제, 특히 유전자 변형 동물의 복제에 대해서 일종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 질병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에서만 유전자 변형 동물 복제를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인간 복제(human cloning)의 윤리

인간 복제라는 말은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한 생명 복제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복제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우리는 몇 가지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 복제를 배아 복제(embryo cloning)와 개체 복제(individual cloning)로 세분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인간 생식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을 이루고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태아로 발전한다. 배아란 일상적으로 수정란과 그 이후의 발전 단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과학자 공동체에서는 수정 후 2주부터 인간의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8주까지 발전된 단계를 일컫는다. 하지만 배아 복제에서의 배아란 전 배아(pre-embryo), 즉 착상 이전의 수정란을 말한다. 그러니까 임신 시작에서부터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출현하는 수정 후 14일까지의 배아를 우리는 전 배아라 부른다.⁵⁾ 이 정의에 따를 경우, 배아 복제는 착상 이전까지의 전 배아를 복제하는 것을 말하며, 개체 복제는 이러한 배아를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유전자 복제와 개체성 복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복제된 인간은 핵 제공자의 복사판인가? 인간 복제란 단지 복제된 인간의 유전자가 핵 제공자의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결코 그 개체성의 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체성 복제의 물음은 한 인간의 개체성 형성에 유전자와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연발생적인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쌍둥이들은, 유전형질은 동일하지만, 성격 형질은 절반 정도만 공유하는 것으로, 전혀 독립된 개체성을 지닌다.⁶⁾ 이를 인

5) 도슨은 전배아의 시점을 수정 후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일상적 견해에 따라 14일까지의 수정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배아와 전배아에 대한 도슨의 정의는 K.Dawson, "Glossary", P.Singer et al., ed., *Embryo Experimenta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248, p.252를 참조하라.

6) 쌍둥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쌍둥이들은 성장과정이야 어떻든 기본 성격상 똑같은 특색이 있다고 한다. 미네소타대학의 연구에서 따로 자란 350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여러 신체적, 심리적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지도력, 상상력, 스트레스, 소외에 대한 취약성 등의 특성들은 타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격성, 성취욕, 질서 의식, 사교성 등과 같은 그밖의 특성 가운데 상당수는 성장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뉴스위크한국판」 102호(1993년 11월 10일), p.16.

간 복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설사 복제된 인간의 유전자가 그 핵 제공자와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간적 차이 및 성장 환경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개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⁷⁾ 심지어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조차도 복제된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⁸⁾

셋째로 우리는 치료용 인간 복제(therapeutic human cloning)와 생식용 인간 복제(reproductive human cloning)를 구분해야 한다. 이는 인간 복제를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후자는 순전히 새로운 개체를 이 땅에 출산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간 복제를 말한다. 이는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에 전자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기간세포를 이용한 세포이식 치료나 노화문제 해결 혹은 절단된 팔을 재생시키기 위한 인간 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⁹⁾ 치료적 인간 복제는 배아 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태어나 개체 복제를 필연적으로 함축하지는 않는다.

1) 생식용 개체 복제의 윤리

체세포 복제술을 하나의 보조 생식술로 받아들이는 경우 어떤 윤리적 물음이 발생하는가? 개체 복제는 두 가지 윤리적 물음을 야기한다. 하나는 개체 복제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의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복제된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이다. 물론 이 두 물음은 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후자의 물음을 탐구하면서 전자의 물음에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미 밝혔듯이, 복제된 인간은 핵 제공자인 원본 인간과 그 유전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복제된 인간은 원본 인간으로부터 모든 DNA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 양은 미미하지만 공여난자의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즉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DNA가 복제 인간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핵 제공자와 공여난자 제공자가 동일 여성인 경우 복제 인간은 그 원본 인간으로부터 모든 유전정보를 물려받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까지 동일인인 경우 복제 인간과 원본 인간은 적어도 유전학적인 차원에서는 구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제된 인간의 개체성을 우

7) 유전자 복제와 개체 복제의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정, "유전자 복제와 인간의 정체성", 『철학과 현실』 39호(1998년 겨울호), pp. 36-44를 참조하라.

8)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Religious Perspectives", M.C.Nussbaum & C.R.Sunstein, ed., *Clones and Clones*(New York:W.W.Norton & Company, 1998), p.170.

9) 생명 복제술의 의학적 유용성에 관해서는 서정선, "인간 복제",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학교육연구소원 편, 『임상윤리학』(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230-232를 참조하라.

10) C.Long & C.DeMuth, "Introduction", L.R.Kass & J.Q.Wilson, *The Ethics of Human Cloning* (Washington,D.C.:The AEI Press), p. xiv

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성장 환경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성격이나 개체의 유사성은 그만큼 더 달라지고 독립적이게 되는데,¹¹⁾ 복제 인간은 자연적인 쌍둥이보다도 그 시간차나 성장 배경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체의 출현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접근법에 따라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우리는 3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론적 접근법(technological perspective)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복제술은 하나의 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 복제의 윤리는 복제술을 이용하는 복제자의 의도나 동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접근법(liberal perspective)이다. 이 방법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맥락에서 인간 복제 물음에 접근한다. 따라서 인간 복제는 개인의 생식 자유를 실현시켜주는 또 하나의 보조 생식술에 지나지 않는다. 복제술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 줄 뿐 아니라 여자로 하여금 성교나 남자의 필요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즉, 이 접근법에 따를 경우 인간 복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셋째는 사회 개량론적 접근법(meliorist perspective)이다. 실제로 유전적 질병의 위험을 예방하고 또 최적인 아기를 출산시키고 나아가 선천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사회를 개선시키는 데 인간 복제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량론적 접근법에서는 사회를 개량시키는 인간 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접근법은 인간 복제의 윤리를 동기나 의도, 권리나 자유, 이득과 해악 등의 문제로 각각 환원시켜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들은 새 생명의 탄생이 갖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존재론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¹²⁾ 즉, 인간 복제가 갖는 인류학적 의미가 무엇이며, 사회학적 의미가 무엇이며, 나아가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 복제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그 윤리가 판단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인간 복제의 윤리는 의미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자면, 인간 복제가 출생의 범주에 속하기에 출생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적인 출산은 남자와 여자의 성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성생식'(sexual reproduction)은 인간이 선택한 방식도 아니고 또 문화나 전통의 산물도 아닌 포유동물이 취하는 하나의 자연적인 생식 방식이다. 인간 복제는 양성 생식이 아니라 '무성생식'(asexual reproduction)이라는 데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식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생식 방식의 차이로 그치지 않고 인간 삶에 전혀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무성 생식이기에 복제된 인간은 '한 쪽 부모 아이'(single-parent

11) J.Harris, *Clones, Genes, and Immortality: Ethics and the Genetic Revolution*(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28.

12) L.R.Kass, "The Wisdom of Repugnance", L.R.Kass & J.Q.Wilson, *The Ethics of Human Cloning*, p.23.

child)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부자 쌍둥이' (father-son twin) 내지 '모녀 쌍둥이' (mother-daughter twin)가 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윤리적 물음이 야기된다. 이러한 원본 인간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복제된 인간은 첫째로, 비록 개체성을 지닌다 해도, 자아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¹³⁾ 자신의 쌍둥이 '부' 나 '모' 와 유전자형이 동일하고 또 성과 외모가 같을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 상당 부분 유사한 경우, 복제된 인간은 소위 '붕어빵' 에 만족하기보다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고유성 내지 개성의 상실감을 맛볼 것이다. 이런 상실감은 '나란 무엇인가' 의 의구심을 낳아, 결국 복제된 인간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낄 것이다. 특히 부모가 한 쪽밖에 없는 복제된 인간의 경우 복제되지 않는 다른 쪽 부모에 대한 이질감은 불가피하리라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제된 인간으로서의 '나' 는 나를 복제한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적적 존재로서의 나는 없어지고, 부모의 바람에 의해 내가 태어났다는 의식을 지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제된 인간은 복제하는 인간의 비인간성의 산물이며, 복제된 인간과 복제하는 인간과의 평등성은 실현될 수 없는 가치로 전락한다."¹⁴⁾ 이는 인간 정체성의 혼란뿐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인간 소외를 낳을 것이다.¹⁵⁾ 특히 인간 복제가 완전히 실현되면 생식에 있어서 남성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소외될 것이며, 그 결과 남녀가 서로 멀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둘째로 인간 복제술은 인간의 생식을 태어남의 개념에서 제조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¹⁶⁾ 이는 이미 체외수정과 배아에 대한 유전자 진단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체외수정에 의한 생식은 적어도 서로 다른 두 남녀 유전자의 결합에 의한 것이나, 인간 복제술은 한 개체의 유전자 복제라는 점에서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복제술로 인해 복제된 인간의 유전자 청사진은 인간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된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되어 유전자 지도가 그려지면, 인간 복제술은 원하는 아기를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제된 인간은 '디자이너 아기' (designer children)라 불리어질 수 있다. 이런 인간 제조는 그 생산품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비인간화를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제된 아기는 그 부모의 원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돈과 결합되면 인간 복제술은 '아기 공장' 내지 '아기의 상품화' 의 시대를 도래시킬 것이다. 아기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등급 매김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곧 인간 평등의 이념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13) L.R.Kass, "The Wisdom of Repugnance", p.33.

14) 박충구, "생명복제와 인간성 위기", 「기독교사상」 463호(1997년 7월호), p.78.

15) 김영진, "유전공학과 인간의 미래", 「철학과 현실」 39호(1998년 겨울호), pp.97-98.

16) L.R.Kass, "The Wisdom of Repugnance", p.38.

버릴 것이다. 즉, 복제된 인간은 인간 시장에서 타자에게 얼마나 유용하냐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는 대체 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¹⁷⁾

셋째로 복제 인간은 핵 제공자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부모-자식의 관계인가 아니면 시차를 둔 쌍둥이인가? 부모의 자식으로 보든지 아니면 쌍둥이로 보든지, 인간 복제는 결국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 복제의 경우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남자가 아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남자의 동생과 아기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상적인 의미로 삼촌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친자나 직계 존·비속 개념의 혼동이 야기되어 법적인 측면에서 재산권의 분할 및 상속권 개념에도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친족 관계의 물음뿐 아니라 인간 복제술은 부모 자녀 관계의 의미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태어난 아기는 그 부모와 유전적 독특성과 유전적 독립성을 아울러 지닌다. 이는 그 아기가 결코 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아기가 부모의 아기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우리 자녀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며,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태어난 아기는 비록 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신체적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나아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복제는 생식을 태어남에서 제조로 바꾸어 버렸다. 이런 아기는 그 원본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하기에 유전적 독특성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제조에는 언제나 의도가 개입된다. 이는 곧 부모의 아기 소유에로 나아가, 복제자가 복제된 인간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제는 본래적으로 전제적(despotic)이다.¹⁸⁾ 왜냐하면 복제는 자기 '형상' (image)을 닮은 자기 아기를 만들려 할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복제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 미래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지배라는 전제주의는 자유의 이념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즉, 개체 복제는 태어날 예비 아기를 목적 자체가 아니라 부모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¹⁹⁾ 이는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근본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료윤리학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자율성 존중 원칙에 어긋난다. 즉, 인간 복제는 예비 아기의 자율성을 그 복제자가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천부적 인권 파괴', '인간의 종말' 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이도 있다.²⁰⁾

17) R.E.N.Dorff, "Human Cloning:A Jewish Perspectives", Testmony before the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March 14, 1977, p.2. 여기서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Religious Perspectives", M.C.Nussbaum & C.R.Sunstein, ed., *Clones and Clones*, p.172에서 인용.

18) L.R.Kass, "The Wisdom of Repugnance", p.42.

19) Joseph S.Spoerl, "In Vitro Fertilization and the Ethics of Procreation", *Ethics and Medicine* 1999. 15.1, pp.10-14을 참조하라.

이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암시되었듯이,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생식의 자유(reproductive freedom)를 들어 인간 복제의 자유를 주장한다. 밀(J.S.Mill) 이래로 내려오는 자유주의 전통에 따를 경우, 자유에 대한 간섭은 오직 그 행위가 타자에게 미치는 해악을 방지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²¹⁾ 인간 복제술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을 입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 복제술을 통한 생식의 자유도 지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윌슨(J.Q.Wilson)은 인간 복제가 불임 치료책이자 입양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일정한 조건, 즉 결혼한 두 부부 하에서 아내가 산모가 되어 출산하여 자녀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그 이유는, 이런 조건하에서의 아기 복제는 결혼이나 가족 관계에, 비록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르지만,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윌슨의 이런 주장 배후에는 인간 복제가 체외수정과 그 본성이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성교가 없으며, 또 인간이 자의적으로 생식을 조작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둘은 같다. 따라서 같은 조건하에 있다면, 체외수정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간 복제 역시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복제는 무성생식이라는 점에서 체외수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의 본질은 성교를 통한 신체의 접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탄생에 양부모(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데 있다.²³⁾ 이런 의미로 보면 체외수정은 유성생식이다. 복제된 아기는 '한 쪽 부모 아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한다면 '원본 인간의 쌍둥이'이다.

그런데 이 주장의 배후에는 모든 아기는 '부모를 가질 권리' 혹은 '두 개인 유전자 혼합의 산물이 될 권리' (right to have two parents or ight to be the product of mixture of genes of two individuals)를 지닌다는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²⁴⁾ 다시 말해, 이는 생식의 자유는 오직 유전적으로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복제된 인간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에 복제술에 의한 생식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복제된 인간은 유전적으로 부모가 없는가? 이에 긍정적

20) 진교훈, "생명조작과 인간 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과학사상」 제22호(1997 가을호), p.86.

21) J.S.Mill, *On Liberty, in Utilitarianism, Libert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New York:Everyman's Library, 1950), p.95.

22) J.Q.Wilson, "The Paradox of Cloning", L.R.Kass & J.Q.Wilson, *The Ethics of Human Cloning*, pp.71-73. 실제로 생식의 자유를 절대적인 권리로 받아들이면, 인간 복제술을 통해 동성애자들도 자기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또 결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순수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자식의 체세포를 미리 추출해 둔다면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그 자식과 똑같은 새로운 자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3) L.R.Kass, "Family Needs Its Natural Roots", L.R.Kass & J.Q.Wilson, *The Ethics of Human Cloning*, p.82.

24) J.Harris, *Clones, Genes, and Immortality: Ethics and the Genetic Revolution*, p.33.

으로 답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공여 난자의 세포질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복제된 인간의 유전자에게 전해진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복제된 인간에게 전달되는 공여난자의 유전자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두 개인의 유전자가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공여 난자와 핵 제공자가 동일할 경우 이 주장은 근거가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복제된 인간을 원본 인간의 쌍둥이 동생으로 보고 원본 인간의 양부모를 복제 인간의 유전적 부모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복제된 인간이 시차를 둔 원본 인간의 쌍둥이 동생으로 간주되기에, 부모 자식 관계로 볼 수 없다. 한 예로, 남편이 핵 제공자가 되고 아내가 난세포를 제공하는 다음 그 핵 이식된 난세포를 아내의 자궁에 착상하여 태어난 아기는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 된다. 그러면 이 아기와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가? 단순한 대리모인가? 아니면 아기의 엄마인가? 이런 반론뿐 아니라 원본 인간의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주장은 아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이는 애초부터 부모 없는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에, 태어난 후 부모가 없는 경우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제된 인간이 유전적 부모를 갖는다는 주장의 논거는 빈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아기는 유전적 부모를 가질 권리를 지닌다는 도덕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체세포 핵 이식 복제술에 의한 인간 복제는 분명 아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복제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 물음, 자녀 출산의 의미 상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등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인간 복제는 태어날 예비 아기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가 되기에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다.

2) 치료용 배아 복제의 윤리

왜 배아를 복제하는가? 그것은 복제된 배아를 이용하여 암과 같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배아를 치료에 허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치료용 배아 복제는 언제나 배아 연구와 배아 이용을 필연적으로 함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제된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체외 수정된 배아의 그것과 동등하다. 그런데 체외 수정 시 실제로 하나의 수정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착상의 효율성 탓에 여러 배아를 만들어 내고 또 유전적 질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배아를 대상으로 착상 전 산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다. 이런 실정을 인정하여 세계 각국은 대체로 수정 후 14일까지의 전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실정이다.²⁵⁾ 착상 전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개체성이 착상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주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논의를 위한 가정으로, 수정 순간 인간 개체성 (A)이 확립된다고 하자. 그런데 생물학적 과정으로 착상 시에 이 수정란이 일란성 쌍둥이 배아로 착상되었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두 아기 B와 C가 출생하게 된다. 그러면 한 개체가 두 개체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쌍둥이화 현상은 착상 때 일어나며 그 이후에는 그 개체가 고정 불변한다. 이는 결국 전 배아는 미결정 단계로서 여러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²⁶⁾ 왜냐하면 원시선이 출현해야 비로소 하나의 개체가 형성되는데, 14일 경 착상 때 이 원시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전 배아는 비록 인간 유전자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의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물론 이 전 배아가 착상되어 태아 단계를 거쳐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이 출생한다. 이 논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지금까지의 '수정 이전 단계와 수정 이후 단계' 라는 두 단계 구분보다 '수정 이전 단계/전 배아 단계/전 배아 이후 단계' 라는 삼 단계 구분이 더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전 배아라는 개념은 인간 생식에 관한 현대 입장에 있어서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Copernican Revolution)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²⁷⁾

복제된 배아는 다른 무엇을 위해 혹은 다른 인간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배아 복제의 경우에도 배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면 위의 논변은 전 배아의 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체성의 확립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논변을 받아들인다면, 전 배아는 아직 인간 개체가 아니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²⁸⁾ 두 개체

25) 대표적 예로 워복 위원회 보고서는 인간 배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인간 배아는 수정 후 14일이 넘도록 여자에게 이식되지 않는 한 결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 수정 후 14일 이후부터의 배아는 연구를 위한 실험재료로 이용될 수 없다. 이 14일에는 배아가 냉동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체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살아있는 인간 배아를 실험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연구에 이용된 배아는 여자에게 이식되어서는 안 된다.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The Warnock Committee Report)", T.L.Beauchamp & L.Walters, ed.,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California: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p.499.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위원회(NBAC)에서 발간한 「인간 복제」(Cloning Human Beings)라는 보고서는 "지금"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려는 시도는 비윤리적이기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정성을 이유로 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는 21세기 생명공학의 발달과 실천적 유용성을 들어, 배아 연구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실제로 최근의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미 미국 제론사 연구팀은 다수의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하여 당뇨병 등의 난치병 치료 연구에 실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26) M.Mori, "On the Concept of Pre-embryo: The Basis for a New 'Copernican Revolution' in the Current View about Human Reproduction", J.Harris and S.Holm, ed.,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Oxford:Clarendon Press, 1998), p.45.

27) *ibid.*, p.39.

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지닌 배아조차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면, 유전적 독립성조차 지니지 못하는 복제된 배아는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적 독립성을 배아의 필수요건으로 보면 복제된 배아는 배아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된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체외수정 때 인간 배아에 대한 산전진단을 비롯한 다양한 검사와 실험이 허용된다면, 배아 복제는 물론이고 이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체외수정용 배아 형성에는 찬성하면서 배아 복제에는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잉여 배아와 연구용 배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일이다. 배아는 일상적으로 착상되는 배아와 잉여 배아로 나눈다. 대부분의 경우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고 건강한 배아를 얻고자 많은 배아를 체외에서 만들어낸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배아들은 일단은 착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착상되면 나머지 배아는 남아둘게 된다. 이 배아를 일상적으로 잉여 배아라고 하고, 착상된 배아를 우리는 건강한 배아(healthy embryo)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잉여 배아는 다시 돌로 나눌 수 있다. 즉 착상을 위해 만들었으나 착상되지 못한 순수한 의미의 '잉여 배아' (spare embryo)와 연구나 치료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배아이다. 이 후자가 바로 연구용 배아(research embryo)이다. 일부 학자들은 단지 순수한 의미의 잉여 배아만 연구용 재료가 될 수 있고, 연구용 배아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⁹⁾ 그러나 잉여 배아와 연구용 배아 구분은 단지 이를 만들어내는 자의 의도에서만 차이가 날 뿐 그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배아 자체의 도덕적 지위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배아에 대해 실제로 일어난 것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런 구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구나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를 반대할 논거를 찾을 수 없다. 전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게 되면, 배아 복제는 하나의 의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암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배아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기간세포를 얻기 위해서도 배아 복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³⁰⁾ 즉, 선행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배아 복제를 하나의 의무로 요구하게 된다.

28) 일부 학자는 인간을 '신체화된 정신' (embodied mind)이라는 하나의 전인으로 파악한 다음 임신 7개월째가 되어야 비로소 이런 인간이 형성되기에 그 이전에는, 치료나 연구 혹은 장기이식을 위한 배아나 태아 복제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eff McMahan, "Cloning, Killing, and Identity",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5, no.3, 1999, pp.77-86을 참조하라.

29) R.Edwards, 'Ethics & Embryology', R.Edwards and J.Purdy, eds., *Human Conception in Vitro*(London:Academic Press, 1981), p.49ff. 여기서는 J.Harris, Clones, Genes, and Immortality, pp.61-62에서 재인용.

30) J.Savulescu, "Should We Clone Human Beings? Cloning as a Source of Tissue for Transplantatio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5, no.3, 1999, pp.87-95를 참조하라.

그러나 현실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윤리학은 실천의 학이다. 따라서 우리는 배아 복제가 갖는 실천적 함축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은 배아 복제의 허용은 곧 태아 복제 내지 개체 복제로 나아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는 미끄러운 언덕길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에 근거한 반론이라 할 수 있다. 배아 복제, 태아 복제, 개체 복제 등은 하나의 연속선을 그린다. 배아 복제가 허용될 경우, 비록 논리적 필연은 아니지만, 적어도 실천적으로는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마치 미끄러운 언덕길 위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돌로 막아두었다가 필요에 의해 2m 정도 차를 옮기려고 그 돌을 제거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원하는 만큼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덕길 아래까지 그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14일까지 배아 복제를 허용할 경우, 14일에서 한 시간 지난 배아 복제의 윤리적 허용가능성 물음이 제기된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단,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같게 대우하라"는 정의의 형식적 조건에 따를 경우, '14일 배아'와 '14일 한 시간 배아'는 그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기에 결국 후자의 배아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 개체 복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끄러운 언덕길 논증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일부 학자들은 배아 복제가 허용되게 되면 갑작스런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 이식용 장기가 필요한 중환자, 불임부부 등은 인간 복제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한다.³¹⁾ 따라서 배아 복제에 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배아 복제 허용은 인간 개체 복제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판도라 상자'를 인류 사회에 가져올 수 있다.

치료를 위한 태아 복제와 개체 복제는 배아 복제보다 윤리적으로 더 중대한 문제를 함축한다. 왜냐하면 전 배아는 아직 개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태어나 개체는 이미 원시선이 출현하여 하나의 개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결코 다른 무엇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윤리 원칙에 따를 경우, 치료용으로 태어나 개체를 복제하는 것은 도덕적 악에 해당된다. 이런 복제의 허용은 결국 인간을 목적적 존재와 수단적 존재로 이원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개체 복제보다도 더 심각한 인간 존엄성 상실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여 전 배아 복제에서 개체 복제에 이르지 않고 곧바로 특정 장기만의 배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이런 윤리적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인간 출발점을 수정 순간으로 잡는 보수주의자들은 윤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개체성이 확립되는 착상 시점을 인간의 출발점으로 보게 되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

31)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USA), "Religion-Based Perspectives on Cloning of Humans", *Ethics and Medicine* 1998 14.1, p.18.

로는 전 배아 복제를 통한 이러한 장기 생산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과학의 주장에 쫓아가고 있다. 그러나 윤리는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당위의 세계를 다룬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의 물음을 다루는 것이 윤리학이다. 제과점에 빵이 즐비하고 또 그것을 몰래 훔쳐먹을 수 있고 그리고 훔쳐먹음으로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러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고 또 생명체 복제가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복제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체 복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제까지 생명은 하나의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체 복제술은 이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만들어지는 생명’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학자적 태도가 아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성과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기에 때문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나 칸트주의 윤리설 등과 같은 기존의 윤리는 어디까지나 이미 주어진 생명체들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윤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윤리설을 그대로 생명공학이나 의학에 적용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생명체 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인간 복제술에 담긴 윤리적 물음들을 단지 개인의 취사선택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어난 인간은 그 발생과 상관없이 생명권을 지니며, 또 개인의 행위는 사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 복제의 경우, 그것이 치료용이든 아니면 생식용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 인간 주체가 언제 시작되는 가라는 윤리적 물음이 제기된다. <정자와 난자-(수정)-수정란-전 배아-(착상)-배아-태아-(출생)-아기>로 이어지는 인간의 개체 발생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출발 시점은 어디인가? 앞으로 이 물음은 윤리학만이 아니라 종교적 논의까지 포함하여 답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인간 복제의 윤리 물음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식용 개체 복제의 경우 복제된 개인의 유전적 동일성에 기인한 자아 정체성 물음, 생식이 태어남에서 제조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생식의 의미 물음, 생식의 자유 물음 등에 대한 윤리

학적 반성이 요구된다. 지금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의학자, 윤리학자, 종교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³²⁾

색인어 : 동물 복제 · 인간 복제 · 생식의 자유 · 전 배아 · 도덕적 지위

K C I

32) 이 글은 기독교학문연구회 주최 집담회(1999.8.21, 숭실대사회봉사관)에서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복제”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ABSTRACT=

Ethical Issu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 Human Cloning

KIM Sang-deug*

In this article, I inquire into ethical problems in cloning through somatic cell transfer. Cloning is divided into two ; animal cloning and human cloning. Animal cloning, combined with genetics, is useful in producing transgenic food or remedying human diseases. It can exert a negative influence upon ecological system. For it can destroy genetic diversity in nature and bring a new species into nature. However, this is a practical objection. Ethical objections to animal cloning are grounded on animal rights and the order of nature. That is, animal cloning violates animal rights to life and is contrary to the order of nature. But these theoretical objections uncritically presuppose that animals have rights to life and there clearly exist the order in nature. These premises are not regarded as true.

Human cloning includes much more ethical problems. It can be divided into human cloning for therapy and one for reproduction. As for the latter, proponents of cloning claim the freedom of reproduction. Anyone does not have the right to infringe on other individual's right such as freedom of reproduction. Many people worry about individual cloning for reproduction. For it is asexual reproduction ; a cloned human is the single-parent child. Asexual reproduction is contrary to the meaning of sexuality in bringing forth a new life. Everyone has the right to be the product of the mixture of the genes of two individuals. Human cloning infringes on this right. First, cloning threatens self-identity of cloned humans. Second, human cloning represents a giant step toward turning procreation into manufacture. It means that a cloner can dominate over a cloned human. This domination is profoundly dehumanizing. Third, human cloning can break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rapeutic human cloning has no ethical problems as stated above. But cloned embryos are used for research or as a means to another human beings. This raises the

problem of the moral standing of pre-embryos. Proponents of embryo cloning claim that embryos have no moral standing because they have yet no individuality. In reality, scientists can already use embryos in in-vitro fertilization. But objection to embryo cloning is grounded upon a slippery slope argument ; if cloning embryo is permissibl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prevent someone from cloning human being. Though pre-embryos have no moral standing, they only have potentiality to become a human being. So we must have a duty to take a special care of pre-embryos.

I conclude that cloning animals is ethically permissible, with proviso that it has no practical problems such as destroying the ecological system. However, cloning individual human being is ethically impermissible because it ignores the meanings of sexuality in bringing forth a new life. As for embryo cloning for therapy, it should be banned until special laws concerning human cloning are enacted.

Key Words: Animal Cloning, Human Cloning, Reproductive Freedom, Pre-embryo, Moral Standing

*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